
第5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4月14日(火) 午前10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 企劃管理室所管業務報告에 대한質疑答辯
 4. 서울特別市決算檢查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
 5.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6.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財務局所管業務報告에 대한質疑答辯
 -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業務報告에 대한質疑答辯
-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 2面
- 1.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 2. 서울特別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 3.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 企劃管理室所管業務報告에 대한質疑答辯 ... 16面
- 4. 서울特別市決算檢查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

市長 提出) ... 40面

5.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 53面

6.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53面

o 財務局所管業務報告에 대한質疑答辯 ... 54面

o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業務報告에 대한質疑答辯 ...
56面

(10時 20分 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1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
습니다.

(議事棒 3打)

o 報告事項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報告事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堯旻 委員; 議案擔當官室에 勤務하는 金堯旻입니다. 報告
드리겠습니다.

92年 3月 25日 議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
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이 回附되어 왔고, 4月 10日
에는 서울特別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 서울特
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
中改正條例案이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報告를 마치
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

市長 提出)

2. 서울特別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3.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時 23分)

○委員長 朴尙東;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提案者인 서울特別市長을 代理하여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존경하는 朴尙東 委員長님 그리고 財務經濟 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財務經濟委員會에서 企劃管理室 所管 條例의 制定과 改正案을 上程, 審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公私間에 機會 있을 때마다 저희 企劃管理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聲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協調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企劃管理室에서는 地方財政의 합리적인 運營을 圖謀하기 위한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設置條例案과 上位 根據法令의 改正에 따른 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改正案 그리고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改正案 등 한 件의 制定條例案과 두 件의 改正條例案, 總 3件의 條例案을 委員님 여러분께 審議 要請하게 되었습니다.

條例案別 主要 制·改正 事由와 內容을 말씀드릴려면 먼저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은 地方財政法이 改正이 되어 地方財政計劃의 樹立에 관한 地方自治團體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各 地方自治團體에 地方財政計劃委員會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財政計劃審議委員會 構成과 運營 등에 관한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改正案은 根據法令인 保健研究所法이 改正이 되어서 關係條文을 整理하고 院長의 任用職列을 保健 또는 工業研究官에서 保健 또는 環境研究官으로 法令에 맞도록 調整하여 施行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改正案은 公務員의 職務發明을 권장하고 研究意識을 向上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補償 規定을 改正하고 特許法의 改正으로 關係條文을 整理하기 위한 것입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 저희 企劃管理室에서 提案한 條例 制·改正案에 대하여 면밀히 檢討, 審議하여 주시고 高見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改善, 補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저희 企劃管理室을 도와주시고 指導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條例案 提案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幹部가 오늘 다 參席을 했습니다만 다른 幹部들은 수차에 인사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技術審査官이 지난 會期初에 새로 赴任을 해서 洪鍾敏 技術審査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技術審査官 洪鍾敏; 洪鍾敏입니다.

지난 2月 27日字 道路局長에서 技術審査官으로 發令받아서 勤務하고 있습니다. 朴尙東 委員長님 以下 여러 委員님들의

指導鞭撻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根據法令인 特許法이 改正됨에 따라 適用 法條文을 變更된 條文으로 整理하고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第15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거 登錄補償金을 上向 調整하는 것으로써 條例整備 次元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特別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保健環境研究所法 및 同法施行令이 전면 改正됨에 따른 關聯條文을 整理하고 地方研究職및指導職公務員의任用등에關한規程 改正에 의한 環境研究職列 新設에 따라 地方研究職인 院長의 任用職列을 保健 또는 工業研究官에서 保健 또는 環境研究官으로 調整하는 것으로 상기 條例의 根據法令인 保健研究所法이 91年 3月 8日字 法律 第4363號 保健環境研究院法으로 法의 名稱이 變更됨에 따라 關聯條文을 整理하고 保健環境研究院法에서 規定한 業務와 일치되게 調整함과 아울러 大統領令인 地方研究職및指導職公務員의任用등에關한規程 改正에 의한 環境研究職列 新設에 따라 院長의 職列을 保健 또는 工業研究官에서 保健 또는 環境研究官으로 調整하는 것은 條例整備 次元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은 地方財政의 計劃的이고 合理的인 運營을 圖謀하기 위해 諮問機構로써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것으로, 地方財政法 第16條第1項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財政을 計劃性있게 運營하기 위하여 中·長期 地方財政計劃을 樹立하여 地方議會에 報告하도록 되어 있고, 地方財政法 第16條第2項에 의하면 地方財政計劃의 樹立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에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그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設置·運營하는 데 있어서 法的 瑕疵는 없다고 봅니다. 條例案에 대하여 具體적으로 말씀드리자면 案 第5條第3項에 의하면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도록 되어 있고, 案 第3條에 의하면 委員會는 副市長이 委員長인 1人和 企劃管理室長이 副委員長인 1人을 포함한 15人 以內的 委員으로 構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會가 비록 諮問機構라 하더라도 委員 中 9名이 關係公務員이어서 사실상 委員長인 副市長의 뜻대로 案件 審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委員인 關係公務員 數를 縮小 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案 第3條第3項에 의하면 關係公務員을 除外한 財政分野에 경험이 풍부한 專門家, 地域代表 中에서 市長이 委囑하는 者는 委員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地域代表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市議員이라면 市議會 議長이 委員으로 委囑 要求하는 市議員을 당연히 委囑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보며, 아울러 서울市 政府의 各 委員會 構成員으로써 市議員의 參與與否 또는 市議會 本會議 및 關係 常任委員會 議決로 委囑하는 者로 할 것인지의 與否, 아니면 議

長 또는 常任委員長이 指名하는 者로 委囑할 것인지를 議會 次元에서 면밀히 檢討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案 第5 條에 의하면 審議案件 및 表決處理時 可否 同數일 경우에는 委員長이 決定하도록 되어 있으나 委員長이 表決에 參與했을 경우에도 可否 同數일 경우에 委員長이 決定 가능한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地方自治法 第56條와 같이 委員長에게 表決 權을 주되 可否 同數일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規定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 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常任委 運營計劃은 改正條例案 2件과 조금 전에 專門委員이 마지막 報告를 한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한 것을 다룬 이후에, 그 다음에 지난 번 臨時會와 우리 常任委에서 市政報告를 듣고 質疑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企劃管理室 所管 諸般業務에 대해서 委員 여러분께서 그 동안 市政報告 書 資料를 주축으로 해서 충분한 研究와 檢討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 內容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質疑를 해주시고 企劃管理室長께 정확한 答辯을 듣도록 그렇게 運營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1項, 2項, 3項에 대한 內容에 대해서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李敏國 委員;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다루었던 問題 한 번 짚고 넘어가고 本 條例案通過를 만져보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까?

○委員長 朴尙東;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일괄 上程된 條例改正案 2件 等 3個項을 處理하고, 바로 지난 번 市政報告를 들으시고 그 內容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上程된 案件을 일단 處理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條例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件 한件 處理하시지요」 하는 委員 있음)

네, 그러시지요.

아마 質疑하실 委員님들이 안 계시는데 일단 한件 한件, 上程된 案件을 하나 하나 處理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滿場一致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滿場一致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습니까?

○李敏國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네, 李敏國 委員님 말씀하시지요

○李敏國 委員; 15人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人 中에 公務員 9名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3名 정도를 더 縮小시키는 것이 正當性이 附與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公務員 숫자를 9名에서 3名을 縮小하면 6名.....

○委員長 朴尙東; 왜 그렇게 3名을 縮小해야 되는지 충분한 理由를 說明을 해 주세요.

○李敏國 委員; 그 理由는 역시 委員長은 副市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相似가 되고 또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어떠한 議案 通

過도 異議를 提起하기가 결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公務員 數를 3名을 縮小해서 一般職으로 놓는 것이 좋다고 思料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러시면 그 內容에 대해서..... 15名 構成을 해야 할 理由, 그 다음에 李敏國 委員이 質疑한 內容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名을 縮小해도 財政計劃審議委員會 構成에 어떤 큰 瑕疵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李敏國 委員의 質疑에 대한 內容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15人 以內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몇 사람 縮小하는 것은 큰 問題는 없습니다. 問題는 없는데, 요는 財政計劃審議委員會라는 그 條例案 명칭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委員이, 여기에 꼭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局長만 委員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投資管理官, 內務·財務·都市·道路·交通 이것은 서울市政을 떠나가는데 있어서 投資計劃과 가장 긴밀한 關聯이 있는 그러한 機能을, 主機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局長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무슨 議決權을 行事하기 위한 그러한 役割을 가지고 이 자리에 參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上程하고 자기가 投資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對象事業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意志를 說明하기 위해 參席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거기에 같이 關聯되어서 그 事務의 連結性을 전부 檢討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李敏國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의하여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參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하나 強調를 드리고, 두 번째로 사실상 어떠한 分野에서 어떠한 計劃을 가지고 장래를 향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問

題에 관해서는 여기서 議決이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審議委員會이기 때문에. 그러나 第2條 機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審議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저희 公職者들이 자기 主管分野에 대한 事業을 確定하는데 있어서 많은 專門家와 地域代表의 意見을 參考로 해서 거기에 좀더 發展的인 方向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깊은 意味가 있다고 봐서 지금 李敏國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위 아까 專門委員 報告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可否 同數인 경우에 委員長이 表決權을 갖더라도 否決로 認定해야 된다는 뭐 그러한 소위 엄청난 規制 이러한 것이 꼭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15人을 채우는 過程에서 公職者 한두 사람을 꼭 빼야 된다고 그러면 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結果的으로 會議에 같이 參與를 해야만 聯關檢討가 可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隘路가 있다는 것도 좀 理解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質疑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李敏國 委員님 잠깐만 계세요.

全潤杓 委員님 말씀하시지요.

○全潤杓 委員; 그럼 當然職이 9名이 아닙니까? 서울市에 지금 當然職인 公務員이 9名이지요. 委員長, 副委員長 합해서 當然職이 9名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公務員이 9名, 當然職이 아니고 公務員.....

○全潤杓 委員; 아니 公務員이 9名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公務員을 9名으로 한 것이지요.

○全潤枸 委員; 지금 室長께서 說明한 대로 모든, 여기에 대한 知識이 풍부한 사람들을 參與시켜서 計劃樹立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여섯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예요, 一般市民과 知識人들은. 이 숫자를 늘려서 한 20명으로 했을 때에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 15人是 法에 15人으로..... 法上 15人 以內로 되어 있어요.

○全潤枸 委員; 法上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上位法이 15人 以內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人으로 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여기도 當然職이 아니고 豫算擔當과 財政分野에 경험이 풍부한 專門家, 地域代表 中에서 市長이 委囑하는 者가 된다 이렇게 했으니가 當然職은 아닙니다. 調整이 될 수도 있습니다.

○全潤枸 委員; 아니, 그런데 當然職은 아닌데 여하간 市 公務員으로서 나오는 것이 當然職 비슷하게 9名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市民이 參與할 수 있는 길은 여섯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조금 法에 違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李敏國 委員 얘기도 일리가 있어서 지금 제가 質問을 하는 것인데 이것 한 7名으로 調整하고 一般에서 8名으로 하고.....

○李敏國 委員; 아니, 제가 提案한 것은 公職者가, 公務員이 9名이고 一般職이 6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5人이 되었는데 반대로 公務員이 6명, 一般 專門職 9名으로 해서 15人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理解되십니까? 公務員이 3名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분을 縮小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公務員이 여섯 분, 一般專門職에서 專門

知識이 풍부한 분을 아홉 분으로 모셔서 열다섯을 채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9名の 公務員이 어느 部署 사람인가 그것을 좀 알 수…….」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여기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第3條 構成에 보세요.

○李敏國 委員; 아홉이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公職者 여섯 분을 모시고 一般을 아홉으로 하기를 원하는 發言을 했습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시지요.

○李秉守 委員; 지금 李敏國 委員의 提議內容은 이 審議委員會 構成의 牽制裝置制度 側面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財政計劃審議委員會의 機能이 趣旨面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執行機關이 아니고 計劃을 立案하는 하나의 審議過程에 불과한 것이니까 어떤 意味에서는 專門性이 準備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專門委員의 檢討報告中에도 잠깐 나오고 私席에서도 우리가 얘기가 있었지만 豫算擔當官하고, 投資管理官을 除外하면 어쩌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投資管理官하고, 豫算擔當官은 이 審議委員會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專門性 이런 것들이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빼는 것은 矛盾이라고 저는 봅니다. 財政計劃審議委員會가 갖는 設立 趣旨 機能面에서 보면 굳이 牽制裝置의 어떤 側面을 너무 우려할 것이 아니고 原案대로 그냥 해도 이 자체는 별 問題가 없을 것 같은데요.

○委員長 朴尙東; 우리 議會에서 앞으로 다 터치할 거예요. 이것은 諮問機構니까 諮問만 해 주는 것이지 여기서 議決權이 있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만일에 諮問委員會에서 안 된다고 설사 그런 決定이 나는 경우라도 기왕 聯關計劃과 더불어서 進行이 되었던 事項 같으면 進行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分野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財政計劃審議委員會가 前提가 되기는 합시다만 그 中期財政計劃이 나옵니다. 이 다음 會期에 本會議에 저희가 上程을 하겠습니까만 中期財政計劃에 의해서 이미 5個年 정도의 서울시 基礎財政의 投資에 관한 計劃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事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혹시 財政計劃審議委員會에 일부 들어갈 可能性도 있고 합시다만 사실상으로 이 財政計劃審議委員會는 그 機能上, 지금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李秉守 委員님께서 指摘해 주신대로 어떤 그 諮問 이상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公務員 숫자라든가, 아까 보신 대로 公務員 中에서 公務員이 없습니다. 전부 財政計劃과 關聯이 되어 있는 사람만 필수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거기에 委員님들께서 크게 심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尙東; 여기 機能을 보시면 알죠. 地方財政 運營 方向에 관한 事項, 財源調達에 관한 事項, 投資事業 樹立에 관한 事項, 기타 市長이 附議하는 事項 이것을 가지고 諮問을 해 주는 機關이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 여기서 財政計劃 樹立이 돼서 서울시에 다시 올라와서 常任委에서 報告가 되고, 檢討가 되고 그 다음 本會議에서 處理가 될 테니까, 그 하나의 過程에 諮問만 받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基礎, 가장 基礎的인 過程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通過가 되더라도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새로운 投資事業이나 이런 것은 일단 財務經濟委員

會의 基礎審議가 먼저 이루어지고, 本會議에 可決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어떤 事項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機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市長이 基礎的으로 案을 樹立하는데 좋은 高見을 좀 듣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나와있는 公職者들은 자기가 關聯된 事業을 위해서 나와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외에 專門家와 地域代表 분들에 의해서 그 事業이 보다 나은 效率性을 檢討하는데 큰 機能이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柳準向 委員; 이것이 먼것만에 우리가 審議한 서울시 市政開發研究院인가 그것하고는 거기가 먼 機構인가요?

○委員長 朴尙東; 전혀 별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이것은 法定機構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李敏國 委員님 理解가 가십니까?

○李敏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可否를 물어주세요. 제가 動議한 案件을 贊成하는 委員이 몇 분이며, 李秉守 委員이 提議한 案件을 贊成하는 委員이 몇 분이냐 可否를 물어서 끝내지요.

○委員長 朴尙東; 아직 動議案이 成立이 안 되었기 때문에 可否를 물을 수는 없고, 李敏國 委員의 質疑에 대한 것을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주셨으니까 委員님께서 理解를 하시게 되면 原案대로 일단 通過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原案에 대해서 異議가 있으시면 조금 더 質疑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李敏國 委員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단순히 여기 機能이라는 것은.....

○李敏國 委員; 여러 委員님들이 아무 異議가 없으시다고 하면 저도 理解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알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滿場一致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感謝합니다. 市政質疑에 대한 것은 한 15分間 停會를 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o 企劃管理室所管業務報告에 대한質疑答辯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지난 第53回 臨時會 開會時 業務報告를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業務報告는 생략하고 企劃管理室 所管 市政에 관한 質疑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에 앞서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質疑後 일괄 答辯을 듣는 方法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一問一答式으로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를 하시고 企劃管理室長이 바로 答辯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會議를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 여러분께서 그 동안 지난 번 市政報告資料에 의해서 많이 研究를 하셨고 檢討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市政 質疑를 알차게, 深度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聲九 委員님 말씀하시지요.

○李聲九 委員; 李聲九 委員입니다.

지난 해 定期會 때 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하고 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이 議會를 通過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清掃事業本部에 附設된 清掃研究所하고 또 市政開發研究院이 內務部 決裁過程에서 홀딩되어 있다는데 그 內容 자초지종을 먼저 說明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一問一答을 아까 委員長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答辯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李聲九 委員님께서 質問해 주신 清掃事業本部는 지난 연말에 委員님들께서 깊은 檢討 끝에 可決해 주셔서 저희가 發足を 했습니다. 發足할 條例를 制定해 주실 당시에 清掃技術研究所하고 그 다음에 5個部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個部만을 認定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內務部 承認過程에서 清掃技術研究所는 다소 조금..... TO도 3級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을 두고 TO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난 번 12月 30日字 내려온 TO에 TO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5個部 中에서 3個部만 認定이 됐었습니다만, 內務部에서 TO를 주기는 TO를 5部로써 그대로 그냥 加減없이 저

희한테 TO를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執行過程에서 그 TO承認에 關係없이 정해주신 條例案대로 執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清掃事業本部의 清掃技術研究所는 條例가 되어 있지만 TO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施行이 불가능해서 잠정적으로 이것은 構成을 하지 못하는 대신 5個部 中에서 3個部로 줄여 주신 것은 TO를 5個部를 받았습시다만 일단은 3個部만 發足を 시켜서 條例대로 進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清掃事業本部長만 지금 發수가 나고 나머지 機構는 아직 發足이 안 됐습시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條例案에 따라서 條例와 같이 發足を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市政開發研究院은 長官 決裁過程에서 總務處하고 總理室하고 다소 좀 異意가 있어서 再檢討를 하자, 地方都市의 사소한 研究院하고는 조금 性質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政府次元에서 檢討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中間回示를 받았습시다. 지금 關係部署가 協議를 좀 해야 되겠기 때문에 다소 遲延되고 있으니까 諒知해 달라는 長官의 公文을 직접 받았습시다. 그런 過程에서 協議는 일단 다 끝났습시다만 長官이 새로 赴任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現況을 충분히 報告를 받지 못한 立場에 있고, 저희가 조만간 이 問題를 포함해서 서울市政에 관한 일반적인 概況을 長官에게 說明할 그런 機會를 갖게 되는데 그 때에 충분한 說明을 해서 議會에서 決定해 주신 그 案이 속히 執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議會에서 정해주신 그 뜻을 충분히 關係機關과 빠른 協議를 끝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委員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添言합니다. 이 상입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니다. 우선 일의 手順이 內務部쪽에 清掃研究所도 그렇고 市政開發研究院이 우선 決裁가 나올 것을 충분한 法的인 타당 檢査가 된 다음에 議會에 넘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問題는..... 거기에 대한 것은 全體 議會, 大議會 問題, 서울市가 너무 방심하고 있다든가 또 일이 기왕 그렇게 되었으면 조속히 그에 대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手順 같은데 이 일이 상당히 微溫的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데 辯明 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事前에 물론 協議를 했으니까 이것은 議會에 올리게 됐지요, 事前에 協議 없이는 사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事前에 協議는 됐습니다만 清掃事業本部는 다소 그 條例內容과 부분적으로 조금 TO上에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同意가 되어서 내려왔고, 이것은 組織에 관한 단순한 問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고, 다만 市政開發研究院만은 서울市內 많은 研究院 때문에 소위 중첩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調整을 해 줄 것이냐 하는 問題에 관해서 內務部 意見과 다른 意見을 가진 그러한 部署가 중간에 이 問題를 같이 핸드링을 하자 하고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內務部 단독으로 處理하는 것 같으면 벌써 내려왔는데 의외로 그런 事項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法人設立認可를 받고 그것을 根據로 해서 條例를 上程을 해서 條例案을 議會에서 可決해 주시는 그러한 方法으로 지금 進行이 되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條例가, 法人設立認可가 난다 하더라도 그 난 結果를 놓고 議會에서 또 다른 意見이 委員님들에 의해서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執行部 立場에서 보면 議會에서 먼저 可決을 해 주시고 內務部の 承認이

다소 좀 상이하게 부분적으로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內務部에서 먼저 承認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委員님들의 高見이 그것보다 좀더 발전적으로 市 實情에 맞도록 이것은 修正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나와 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執行部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을 앞으로 많이 겪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처음으로 市議會가 開會되면서 저희가 市の 發展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일 가운데 두 가지 條例, 특히 財經委員會 우리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한 번 잘해 보라는 그러한 激勵말씀까지 주시면서 通過시켜주셨던 그러한 事項이 한 가지가 아직 完決되지 못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節次 上の 問題 이러한 것을 떠나서 主務 立場인 企劃管理室長으로서는 委員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問題를 조속히 매듭을 지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제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 關係公務員들 간에 서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거기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먼저 그 市政開發研究院設置條例案 審議할 때 92年 豫算에 市政開發研究院을 設置하면 한 20億원이 節約된다고 그랬고, 企劃室長께서요. 그리고 우리 企劃室 豫算만 해도 92年分에서 한 3億원이 節約된다 해서 우리가 削減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여타 후유증 管理 問題는 큰 大過없이 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것은 큰 問題가 없습니다, 上

半期에는 거의 發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와 關聯되어서 發注할 問題는 그렇게까지 時間이 많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問題가 없이 進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清掃事業本部 設置過程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 條例案에는 4部가 나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4部.

○李聲九 委員; 4部로 編成이 됐는데 이번 서울시에서는 施設部에서 施設1部, 2部가 아마 編制가 나오고 있는데 그 內容이 뭐고 또 어떻게 됐는지 經過를 한 번 說明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李聲九 委員; 서울시報..... 專門委員 나 좀 봅시다. 이것을 한 번 보여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은 저희가 條例에 根據한 規則을 發수를 한 事項인데 施設管理局에다 지금 3個部를 뒀는데 條例를 정해주실 당시에 2部로써 條例를 그 때 정해주셨습니다. 정해주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4部로써만 運營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公定을 봐서, 委員님들이 충분히 그 2個部 가지고는 안 되겠고 원래 條例案에 나와있는 대로 施設1·2部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그런 狀況까지 가면서 그 條例案에 대한 改正을 委員님들께 부탁을 드릴 그러한 計劃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內務部에서 내려온 이 事項은 일단은 이 대로 規則으로 發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規則으로 發수를 했습니다만 規則으로 發수는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條例案대로 發足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의

立場인 것은 분명히 委員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아직 發足を, 施設1·2部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직 안 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이 市報는 왜 나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데 이 市報는 지금 모든 그것을 發足하기 위한 하나의 事前措置로써 나왔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딱 說明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條例대로 하긴 꼭 그렇게 하는데 기왕 內務部에서 나온 規則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그냥 일단 告示만 한 그러한 狀況이라는 것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聲九 委員; 이것이 좀..... 이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원래 清掃事業本部 設置를 할 때 條例案에 보면 本부와 下部機關에 두는 公務員의 種類 및 職級別 定員은 따로 規則으로 정한다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原案이. 그런데 財務經濟委員會 全員이 清掃事業本部를 하나 만드는 것도 부담스럽고, 機構가 또 너무 放漫해질까 싶어서 아예 機構表를 條例案에 붙이자 해서 그 때 條例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6部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企劃室에서 提出한 條例機構表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調節해서 4部로 아예 條例案에 別添 붙이는 條件으로 條例案이 通過가 됐습니다, 議會에서. 그렇게 됐지요?

(「最終 通過한 寫本 여기 있어요, 모르시면 보세요」 하는 委員 있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規則 자체가 原條例案하고 상이하게 되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

는 제가 분명히 委員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規則을 制定하는 過程에서 內務部의 事前承認을 또 받습니다, 規則을 制定할 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內務部에서는 承認된 內容이 있으니까, TO를 承認해준 內容이 있으니까 그 承認해준 內容대로 規則을 일단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內務部에서 이렇게 修正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規則을 이렇게 일단 만들게 되는 그런 狀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規則 자체는 條例案하고 틀리기 때문에 委員님들께 잘못되었다는 점을 저희가 솔직히 承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前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企劃管理室이 執行部 立場에서 內務部와 市議會에서 可決해 주신, 通過시켜 주실 그 條例案과 상이한 이 속에 지금 저희가 中間의 立場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狀況에 봉착하다 보니까 規則公布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條例대로 強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內務部에서 承認이 안 되고 해서 이런 規則이 불가피하게 탄생이 된 것 같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內務部하고 절충을 해서 일단 條例案하고 맞추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條例案대로 施設1·2部를 施設部로 統合한다 이런 뜻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清掃事業本部 設置할 때 機構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만 원래 없는 機構案을 아예 붙여서 條例案을 通過했다는 것은 機構에 대해서 全 委員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것을..... 또 市報의 內容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市報

에 분명히 施設部만 나갔는데 1部가 增設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 뭔가 議會의 일은 議會대로 돌아가고 執行部는 執行部대로 돌아가고, 뭐 쉽게 말해서 여기를 떠나면 별 관심 없다는 이러한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問題가 執行部에서 大議會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성의 없게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內務部하고의 內容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명백하게 條例案대로 고치는 것으로 解明을 듣고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內務部案하고 서울市議會하고 어느 쪽을 우선해서 하는지 그것도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일이니까 施行錯誤들이 안 있겠습니까만, 지금 전부가 서로가 調律하는 過程인데 아무튼 委員 立場에서 볼 때 그렇게...... 條例案이 두 個가 通過가 되었는데 內務部에서 그냥 붙잡힌다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럴 施行錯誤 없기를 당부하면서 質疑 끝냅니다.

○委員長 朴尙東;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李聲九 委員의 質疑에 대해서 잘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決議해서 넘겨준 이 條例案에 대해서 執行機關에서 이것을 그대로 執行하거나 施行을 하지 않고 오히려 執行部 마음대로 議會에서 決定해서 넘겨준 事案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냥 執行을 한다고 그러면 議會에 條例案 같은 것 앞으로 上程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審議를 해서, 質疑를 해서 答辯을 듣고, 우리 市民의 立場에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이것을 정말 深思熟考해서 다루어서 넘겨준 條例案에 대한 것을 이렇게 輕視하는 方向으로 行政機關에서 處理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問題를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對處할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분명히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 問題, 李聲九 委員

의 이야기를 반드시 參考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方向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委員들 質疑해 주시지요.

네, 그럼 李秉守 委員 하시고 金順愛 委員 하시지요.

○李秉守 委員; 李秉守 委員입니다.

市民의 奉仕者로 自任을 하면서 議會 進出을 해서 委員會 構成을 한지도 한 10個月 가까이 됐는데 평소 市民의 立場에서 보던 서울시 行政하고, 議會 울타리 안에 들어 와서 어떤 意味에서는 責任을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次元에서 관심을 좀 갖다보니까 서울시政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어렵 뜻이 알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質問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企劃管理室 業務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企劃管理室이 總括機能을 갖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 指摘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質問을 하고자 하는 內容이 뭐냐하면 현재 우리 서울시 地下施設에 대해서 各種 圖面, 예를 들면 上·下水道, 電氣·電話線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또 도시가스配管 그 다음에 90年度부터 實施한 環境保全法에 의한 LNG施設管 400m 管으로 된 것, 또 地域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地域煖房을 위한 配管網 이것이 地下에 얽히고 설켜서 埋設이 되어 있다 보니까 工事を 하다보면 최근에도 뭐 2·3個月마다 한 件씩 터지는데 이 地下 굴착工事を 하다보면 이것을 잘못 건드려서 가스가 噴出이 되고, 電話·電氣線이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일이 가끔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낀 것인데 이제 이 時點에서 적어도 地下施設物에 대한 基本圖面을 電算化管理 體系를 構築할 段階가 되지 않았나, 어떤 意味에서는 늦

다고 보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 물론 지난 年初 李海元 市長의 施政演說에서도 概括的이지만 앞으로 그럴 計劃이다 하는 문맥을 제가 읽은 바도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한, 서울시가 풀어야 할 課題 中에 하나가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指摘을 하니까 市 幹部會議에서 이 問題를 整理를 해서 그 計劃을 한 번 세우는 契機로 삼아 주었으면 하는 意味에서 指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指摘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 하루에 수천톤씩 쏟아지는 쓰레기를 지금 埋立에서 燒却政策으로 計劃을 세우고 서울시에도 각 요소 요소에 埋立施設工場을 設置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市 豫算으로 하는 것도 있고, 民資를 誘致할 計劃도 있는데 이 問題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것을 指摘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序論을 약간 펴겠습니다.

江南·瑞草地域하면 72%가 共同住宅 아파트團地인데 90年度 環境保全法에 의해서, 環境處 告示에 의해서 35坪부터 아파트에 LNG施設을 하기 위해서 管을 다 묻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0坪, 금년에는 25坪, 서울시 方針도 93年度에 가면 25坪 以下도 共同住宅團地에는 전부 LNG施設을 義務化 하겠다 하는 것이 方針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地域煖房公社라고 있어요, 韓電이 投資한 政府機關 아닙니까. 唐人里發電所 병커 熱源을 LNG施設로 바꾸려 하니까 期間이 몇年 걸리고 해서 汝矣島를 비롯한 남서울 一帶에 地域煖房으로 供給되었던 아파트團地에 곧 계속 供給을 해야 하는 問題 때문에 盆唐에서 熱併合發電所에서 오는 熱을 連結해서 解決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 아파트聯合會에서 알고 江南·瑞草에 誘致를 제가 앞장을 서서 작년 12월에 動

資部에서 事業承認을 받았어요. 問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政府政策이 環境處에서 LNG管을 묻었을 때의 그 政策의 길이는 環境 大氣汚染 抑制 次元에서 출발한 것이고, 動資部の 燃料政策은, 集團에너지方式이라는 것은 燃料節約 次元에서 이것이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總括하는 어떤 政策部署가 一元化되어 있었다라면 이런 二重投資 이런 矛盾이 안 생기는데 이것이 調整이 안 되어서 기존 LNG施設한 團地에서도 이 時點에서 LNG施設 投資는 했지만 地域煖房으로 代置했을 때 훨씬 利點이 많고 經濟性이 있기 때문에 결국 二重投資를 감수하면서 地域煖房을 받기로 된 것입니다. 動資部에서 技術檢討도 다해서 江南·瑞草의 住民이 年間 200 億원 정도의 管理費 節減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퍼느냐 하면 앞으로 燒却場 있지요. 이 燒却場 建設이 埋立을 하려면 運搬手段, 交通滯症 등 여러 가지 問題點에서 燒却으로 하려고 하는 政策은 사실 좋은데 環境處하고, 動資部하고, 서울市하고 이 政策을 3部處間에 合議를 해서 앞으로 燒却場 建設을 하겠다 하면 어떤 區間을 정해서 몇 個團地는 쓰레기 燒却場으로 인한 廢熱을 가지고 地域煖房을 解決한다 하는 方針이 部處間에 合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요. 그것이 안 되면 動資部에서 이미 管을 LNG施設로 다 해 버리고 나서 燒却場 建設을 해 봐야 廢熱을 消化시킬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燒却場 자체 建設이 經濟性이 없다 이거예요, 焦點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施行하기 전에 動資部하고, 環境處하고 事前協議를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焦點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施行錯誤, 뭐 했느냐? 서울市 따로 놓고, 環境處, 動資部 따로따로 노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우스운 꼴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意味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앞장을 서서 環境處하고, 動資部하고 事前協議를 해서 燒却場 建設을 군데군데 決定을 하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아까 李秉守 委員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答辯을 지금 금방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答辯은 아닙니다만, 먼저 서울시의 地下施設物에 대한 配置圖面을 電算化해야 된다는 말씀은 소위 GIS計劃이라고 해서 지금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委員님들께서 豫算을 下水網 관계로 해서 30億원 가까이 넣어 주셨고, 그 다음에 道路施設物로 해서 한 30億원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地上·地下埋設物을 圖面化 소위 電算化하는데 약 10年 내지 15年, 그리고 豫算을 보면 1,000億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작은 지금 20億원, 30億원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每年單位로 增加되는 것이 한꺼번에 몇 百億원씩 들어 가야 될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제가 主管이 되어서 關聯局과 中央 또는 技術諮問機關과 會議를 거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結論을 내지 못한 그런 狀態입니다. 그것은 交通問題 指摘까지도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복잡한 問題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長期化 되기 때문에.....

○李秉守 委員; 一般配置圖, 최소한 基本圖面, 平面圖..... 中央 斷面圖까지는 필요 없어도 一般配置圖 하나 만이라도 딱.....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工事 굴착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굴착을 하면 事故는 없다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소위 浪費要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浪費가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어차피 복합적으로 같이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순서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狀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理解해 주시고, 이것도 우리나라에 소위 그런 電算化作業을 할 수 있는 그런 用役業體가 불과 2·3個밖에 없는데 그것도 能力이 상당히 부치는 이런 狀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問題를 골똘하게 檢討를 하고 있기 때문에 下半期까지는 어떤 形態든지 結論을 내서 着手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燃料 節約次元과 公害次元의 소위 政策的인 側面에서의 二重性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理解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燒却場 建設을 하는데 사실상 熱併合發電所를 거기다 建設하는 것은 또 별개의 事項입니다. 그래서 燒却場에 당연히 熱併合發電所가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燒却場은 燒却場대로 建設하면서 熱併合發電所는 그 나름대로 建設이 거기에 追加되어야 되는 그러한 狀況입니다만 結論적으로 봐서는 熱併合發電所가 燒却場하고 連繫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봐서 許可地域이 있고 承認을 당연히 받은 地域으로 認定되는 告示地域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問題는 우선 저희 市內에서 意見調整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關係部處하고 協議하도록 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金順愛 委員 먼저 하시고 다음에 崔委員 해주십시오.

○金順愛 委員; 서울시에서 道路鋪裝를 하고 난 다음에 몇 年

후에 굴착 許可를 받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3年이지요.

○金順愛 委員; 3年입니다.

(「幹線道路가 3年, 그 다음에 그 보다 더 낮은 데는 2年」하는 委員 있음)

○金順愛 委員; 2年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年內에나 1年 안에, 2年 내지 3年이 되기 전에 建築許可를 받아서 도시가 스나 下水道를 配管할 때 굴착 許可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이 이제 항상 저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金順愛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시는 그 이상으로 지금 各 部署가 道路局하고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金順愛 委員; 그러시지요. 많은 民願이 지금 惹起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民願, 官願 합해서 지금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소위 시간적으로 기다릴 餘裕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漏水가 났다든지 地下에서 무슨 事故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다시 파고 復舊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지었다 할 경우에 區廳에 따라서 區廳長이 그 인근의 狀況을 판단을 해서 많은 損傷이 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그 경우에 따라서 對策을 講究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金順愛 委員;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個 區廳에서 지금 그것을 接受를 받아 놓으시고 서울시로부터 해

주지 마라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굴착許可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會社와 該當區廳과 서로간의 意見도 다르고 또 民願人 立場에서는 建築許可를 받아서 工事を 다 하고 난 다음에 竣工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竣工도 못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LPG가스로 代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新築建築物에 한해서는 굴착 許可를 해 줘도 된다는 것으로 앞으로 고칠 意向은 없으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이 法定事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民願을 전부다 綜合을 해서 그 統計를 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主張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民願解消 次元에서 市民의 不便을 解消한다는 적극적인 次元에서 충분한 檢討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上部에 建議를 해서 어떤 그 融通性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順愛 委員; 글썄 말입니다. 제 생각은 擔當公務員도 시달림을 받고 민원인도 問題가 되고, 저는 條例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가스會社가 京畿道에 다섯 個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서울地域에 다섯 個이지요.

○金順愛 委員; 그것을 좀더 增設할 그런 意見은 없으신지요. 너무 황포가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現場 位置에서 어느 會社에서는 몇百萬원이 나오고, 어느 會社에서는 몇 拾萬원이 나오고, 會社마다 金額이 다른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宗雨; 지금 도시가스 관계 말씀 가운데 도시가스會社 다섯 個가 서울의 全 區域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사실상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

번 그냥 하겠다는 사람은 다 주어서 自由競爭을 좀더 벌려보
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시가스관이 현재
地域別로 즉 전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地域을 잘라
서 어느 會社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形態가 되었든
간에 나중에 그것이 決定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地域을
이렇게 잘라서 나누어주자 하고서 생각을 해 보니까 기존 埋
設管에 대한 引受引繼가 되질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順愛 委員;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대로 放置
할 수는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래서 꼭 많아서 良質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이것은 도시가스會社로 하여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行政적으로 좀 뒷받침 할 것은 뒷받침 해 주
고, 規制할 것은 規制하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行政이 필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빨리 저희가 도시가스 普及率을 높
여야 되겠는데 石油基金에서 支援을 받던 것을 금년부터 받
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5年內에 약 7,800億원의 資金 造成
을 해서 도시가스 普及을 늘릴 수 있도록 産業銀行하고 政府
하고 저희 市도 일부 거기 負擔을 하고 해서 基金을 設置하
는데 초점을 맞춰서 금년에 計劃을 하나 樹立해 냈고, 그 다
음에 두 번째로 아까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왜 業體마다 같
은 거리를 놓고 施設하려고 하는데 金額이 들쭉날쭉하느냐
하는 그런 民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지난달에 그 標準價格
을 정했습니다. 몇 m부터 몇 m까지 施設費가 얼마, 몇 m부
터 몇 m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標準施設費를 다 만들
어서 業體들을 모아서 전부다 示達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各 區廳에 弘報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標準施設費대로

받지 않고 만일에 거기에서 자기들 임의로 더 받는 事例가 벌어지면 그것은 저희가 물론 申告를 받아야만 알 수 있겠습니까만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이라도 檢査를 통해서 더 받은 事例에 대해서는 저희가 行政措置를 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도시가스는 메인관이, 主된 관이 들어가서 支線이 들어가더라도 일정한 地域에 한꺼번에 많은 集團地域에서 需要家들이 配管을 희망을 하셔서 돈을 다 부담을 하시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한 2·300戶 있는 그 住宅團地를 對象으로 해서 支線 하나 물어왔더니 뭐 한 댓 家口만 쓰신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 쓰신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도시가스관을 미리 물어놓을 수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投資가, 先投資가 너무나..... 懷妊期間이 긴 先投資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經濟的 負擔이 상당히 큰 그러한 問題도 있다는 것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順愛 委員; 네, 알겠습니다. 물론 企劃室長께서도 돌아가시면 住民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同僚委員님들도 다들 느끼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 市民 90%가 도시가스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미리 짐작하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順愛 委員; 앞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집에 電氣計量器와 水道計量器, 本委員이 알고 있기는 轉電에나 該當區廳에나 이 計量器를 申請할 때 Kw에 얼마 納付를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建築物에 水道計量器와 電氣計量器는 基本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生活하시다가 다음에 建築을 할 당시 電氣

와 水道計量器를 返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返納을 하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返納 동시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서울市 財産이기 때문에 바로 返納하고 新築을 할 때는 다시 計量器값을 내고 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韓電의 條例冊과 上水道書業本部 條例冊을 일전에 제가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본 結果 既 計量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計量器를 타올 때, 예를 들어서 종전에 현 建物이었을 때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新築으로 인해서 計量器가 10個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個는 既 拂入을 했기 때문에 9個값만 저희가 拂入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번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市에서 무조건 新築을 해서 計量器가 1個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個를 타왔을 때 10個값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件數가 작년에 2,770件의 建築許可가 나왔어요. 그러면 2,770件에 대해서 既 舊 建物입니다. 그 計量器 값은 안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水道計量器하고, 電氣計量器를 計算해 보니까, 약 3,000個 基準으로 해서 計算을 해 보니까 電氣計量器 3kw에 2萬 7,500원이거든요. 2萬 7,500원 計算하고, 水道計量器도 2萬 7,000원으로 計算해 보니까 1년에 1億 6,000萬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러면 결국 民願人들에게 엄청난 損害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企劃室長님께서 各 區廳別로 基本 計量器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確認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도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金順愛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財務經濟委員

會 全委員님들께서 지난번 常任委員會 때 內務部 모든 法이 上位法, 上位法 해서 이것은 自治區가 이미 構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이 上位法, 上位法 해서 이렇게 問題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學論을 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企劃室長님께서 "앞으로는 內務部에서 自治區로 많이 移管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移管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러면 오늘 같은 이 시간에 저희 財務經濟委員會에 內務部에서 서울市로 移管된 上位法이 몇 件이고 또 서울市에서 各 區別로 移管된 法令은 몇 件이고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다음에라도 이 件數를 저희 財務經濟委員會에 報告해 주실 用意는 없으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해 드려야지요.

○金順愛 委員;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順愛 委員; 현재 어느 部署에는 약 60件이 서울市에서 各 區廳別로 移管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部署에서는. 그러면 서울市 各 部署가, 예를 들어서 10個 部署라 하면 한 部署에서 60件이 區廳別로 移管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어느 業務가 區廳으로 移管되고, 市議員들이 해야 할 일이, 內務部에서 넘어온 일이 저희가 뭐 뭘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저희 委員님들도 모르고 계시고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상히 앞으로 넘어올 것은 넘어오더라도 현재 넘어온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地域에 나가서도 民願人이나 有權者들이 물었을 때 자신 있게 答辯할 수 있는 그런 資料

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수고하셨습니다. 崔明鎭 委員님 말씀하시지요.

○崔明鎭 委員; 서울시의 施策發表 企劃管理室에서 調整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 손을 거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事案에 따라서.....

○崔明鎭 委員; 事案에 따라서 틀립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選舉를, 이번 總選을 앞두고 유달리 서울시의 善心性 또는 장미빛 施策들이 많이 發表가 됐었는데 選舉 前에 보통 하루에 몇 件씩 發表가 됐고, 選舉 도중 또 選舉 後에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해서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아시는 대로 答辯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選舉前에 弘報가, 새로운 施策이 많이 發表 됐다거나 하는 그것은 저의가 集計를 내보지 않았습니지만 물론 계절적으로 봐서 같은 일을 해 나가면서도 年間計劃이 年初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서면 조금 뜸했다가 또 年末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崔明鎭 委員님께서 質疑하시는 그러한 감각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히 善心性이라고 생각될만한 그런 弘報는 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특별한 弘報가 企劃管理室長님의 決裁下에 나간 적은 없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반드시 제가 介入을 해서 안

나갔다 하는 것도 물론 그런 事項도 됩니다만 제가 무슨 종합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번 選舉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計劃을 짠 일도 없습니다만 各 部署別로도, 主務局別로도 選舉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좋을 일 또는 없는 일 또는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를 그런 일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런 일을 發表하거나 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把握하고 계신 줄로 알았었는데, 뭐 道와 各 新聞에도 報道되었습니다만 選舉前이나 도중에 하루 평균 2·30件의 施策들이 서울시에서 發表가 됐었습니다.

選舉가 끝난 뒤에는 4·5件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 紙上에 이미 報道化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만 모르셨다고 하니가 企劃管理室長님의 손을 안 거친 것으로 本委員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代表的으로 地下車道에 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작년 廣域選舉 앞두고도 아직 서울시民의 公聽會나 意見收斂도 안된 地下車道 問題를 選舉 직전에 發表를 했고, 또 이번 總選 직전에 盧大統領의 서울시 訪問에서 또 發表해서 輿論의 고된 批判도 받았습시다만 모든 것이 때와 場所와 時期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室長님께서 答辯하신 그 內容을 봤을 때는 어떤 意圖 下에 이런 施策이나 事業이, 計劃이 發表되지 않았다고 本委員도 確信하고 싶습니다만 地下車道問題 같은 경우 代表的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서울시民의 대부분 또 뭐 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選舉를 앞두고 票를 얻기 위해서 發表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대두 됐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反對를 하고 또 公聽會를 거쳐서 妥當性이 확정되지도 않은 狀態에

서 鳥飛梨落이라면 너무나도 鳥飛梨落이 심합니다. 꼭 중요한 選舉를 앞두고 이것이 發表되는지 혹시 그 理由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答辯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는 지금 崔明鎭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조목 조목 그 말씀을 같이 말씀 따라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崔明鎭 委員님께서 指摘하신대로 많은 市民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그 때에 맞춰 發表했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選舉를 잘하기 위해서 票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票를 깎려고 하는 弘報밖에 안 되지요, 저희 立場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善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트리려는 結論밖에 안 됐고, 사실상으로 公廳會는 앞으로 합니다. 公廳會를 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公廳會 資料는 만들어야 됩니다. 公廳會 資料를 만들어야 되는데 研究結果가 일단 나온 것을, 年末에 나와서 그 동안 즉 檢討를 하던 것을 저희 市의 市長은 일단 政府에다 또는 議會에 작년 중반에다 報告를 한 事項이니까 중간중간 흐르는 過程을 중간 중간에 報告를 해 드릴 義務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推進되고 있다는 事項을 報告를 해 드릴 그런 義務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하나의 業務報告的인 形式을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代案을 지금 서너 個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意見도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案을 다만 報告드린 것뿐이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지금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公廳會라든가 여러 가지 過程을 거쳐서 確定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問題는 만일 選舉를 意識을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제대로 發表를 못한다, 施策을 못 편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自治團體長 選舉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

問題라든지 또 市議員님 選舉, 區議員님 選舉, 國會議員 選舉, 大統領 選舉 이렇게 치면 4年 동안에 選舉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市廳은 아무 發表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結論的으로 그런 結論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立場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崔委員님 指摘하신 대로 그 報告書 하나 하나가 잘못 나가면 전부 善心用이라고 얘기할 可能性이 많은데, 이 善心用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꼭 意識을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저희는 절대 그런 意識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가서 뭐 票 몰이를 해 올는지, 이것이 나가서..... 아니할 말로 전부다 바람에 날려 보낼는지 전혀 公務員들이 또 그런 意識할 필요도 없는 立場이고 그래서 다만, 手順대로 그런 契機에, 그 때에, 적당한 時期에, 적절한 時期에 맞춰서 發表를 할 뿐이지 政治日程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일 지금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市廳은 아무 發表도 못하고 살아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널리 理解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企劃管理室長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작년엔 서울市議會 臨時會, 9월에 있었던 臨時會 때도 本委員이 選舉를 앞두고 疑心을 받을 만한 善心性 公約이나 事業은 執行하거나 發表하지 않아야 된다, 그 때 李海元 서울市長의 答辯은 "誤解를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事業이나 公約이나 事業發表는 안 하겠다, 피해가도록 하겠다" 이런 答辯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때의 答辯과 또 이번 總選期間 中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室長님께서서는 票 몰이가 아니고 票를 깎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質疑는 中止하

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企劃管理室所管 市政에 관한 質疑·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企劃管理室 市政質疑는 이것으로 마치고 委員 여러분께서는 2時에 財務局 所管 條例案과 그 다음에 市政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08分 會議中止)

(14時 14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 議事進行은 지난 번 留保를 시킨 條例案 2件과 오늘 하나 또 提出된 條例案 1件을 먼저 다룬 이후에 그 다음에 財務局 所管 業務에 대한 것의 質疑와 答辯을 듣도록 그렇게 議事進行을 할 計劃입니다.

4. 서울特別市決算檢查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15分)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決算檢查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을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提案者인 서울特別市長을 代理하여 財務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議案番號 332號 서울特別市決算檢查委員 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는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서울特別市の 決算에 효율적인 檢查를 遂行하기 위하여 決算 檢查 委員의 選任과 運營 및 實費補償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는데 있습니다.

條例案의 주요골자는 첫째, 決算檢查委員의 定數는 5人으로 하고 둘째, 檢查委員의 選任方法 및 節次에 있어서 檢查委員은 市議會議員 그리고 政府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서 豫算·決算業務에 經驗이 있는 5級 以上 公務員 經歷者 그리고 政府 投資機關, 金融機關 등에서 檢查 또는 監查業務에 經驗者 그리고 기타 公認會計士 등 財務管理에 관한 專門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 등 檢查委員이 될 資格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 中에서 議會議長의 推薦에 의하여 議會의 議決로 選任하도록 하였고, 셋째로는 檢查期間은 市長으로부터 決算書 및 그 證憑書類를 移送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檢查를 終了하여야 하고, 檢查意見書を 作成해서 市長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檢查委員에 대한 實費補償은 市議會議員의 日費, 旅費 支給基準을 準用하여 支給토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 條例案을 다시 조금 더 敷衍해서 報告드리면 第3條의 選任方法 및 節次에 있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의원 이외의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

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감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案에 規定이 되어 있고, 議會議長은 選任된 委員에 대하여는 委囑狀을 交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委員 中에서 代表委員을 指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代表委員은 決算檢査에 관한 事務를 統轄하고 또 代表 委員이 有故時에는 議會議長이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檢査委員의 職務는 第6條에 規定을 했습니다만, 檢査委員은 市長이 地方財政法 第41條 및 同法施行令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하는 歲入·歲出 決算 및 그 證憑書類에 의하여 檢査業務를 遂行하고 그 다음에 檢査委員은 市長으로부터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移送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檢査를 完了하여야 하도록 하고, 또한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意見書를 작성한 후 모든 委員이 連名으로 署名해서 市長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檢査委員의 決算檢査業務는 檢査意見書를 市長에게 提出함으

로써 終了가 되도록 되어 있고, 選任된 檢査委員의 身分은 당 해년도 12月 31日까지 存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서울特別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 條例案에 대해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은 地方自治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거하여 서울特別市の 決算에 대한 효율적인 檢査를 遂行하기 위하여 決算檢査 委員의 選任과 運營 및 實費補償 등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으로써 地方自治法 第125條에 의거하여 議會의 承認을 얻도록 되어 있고,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6條에 의해 檢査委員의 數를 5人으로,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7條에 따라 決算檢査 事項을 명확히 하고, 서울特別市議會議員 報酬 등에 關한 條例上 關係規定을 準用하여 檢査委員에 대해 實費報償토록 하였으므로 根據法令에 違背됨이 없어 法的瑕疵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案 第6條第3項에 의하면 檢査委員은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意見書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委員이 連名으로 署名하여 市長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으나, 檢査委員 相互間의 意見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處理한다는 명확한 規定이 없으므로 議會에서 審査報告書에 少數意見を 明記하듯이 委員間에 意見を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意見도 같이 提出할 수 있도록 明文化함이 좋을 듯합니다.

參考事項을 말씀드리면 檢査委員 各自가 檢査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다고 施策의 意見이 있음을 報告드리면서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奎 委員 말씀하시지요.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지금 檢査委員의 定數가 5人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두 사람은 서울特別市長이 推薦하는 者로 할 수 있다 이렇게 條例案이 되어 있는데 이 意圖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서울市長이 推薦하는 두 사람을 檢査委員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財務局長의 意見을 좀 묻고 싶습니다.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 朴尙東; 一問一答 式으로 會議進行을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金炯奎 委員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檢査委員의 選任에 5人이라고 한 것은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6條 檢査委員의 選任 이렇게 되어 있는데 第1項에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 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그 5人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選任하는 두 사람을 推薦하고자 하는 그 意味가 뭐냐 이거예요.

○財務局長 裴文煥; 네, 決算檢査委員은 원칙으로 議長의 推薦으로 議會에서 選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全員이 다..... 누가 推薦했든간에 市議會 議長의 推薦으로 議會에서

選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뜻은 主務部處인 內務部에서 全國市·道, 市·郡에 準則을, 條例案 準則을 보낼 때에 市·道에 있어서는 市長이 推薦하는 2人으로 한다는 準則을 받아서 했는데 이 뜻은 議長이 適任者를 物色하기 어려울 경우에 對備해서 議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 推薦할 수 있도록 보충적 任意規定을 두었다고 봅니다.

○金炯奎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局長이나 關係 公務員이나 또 議會議員들이 다 아시다시피 豫算案을 議會에서 議決해서 실질적으로 執行하는 그 執行與否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決算하는 檢査委員 이 자체는 議會의 存續的인 權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決算檢査委員 다섯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서울市長이 推薦하는 者로 制約하려고 하는 그런 意圖가 있는 것이 아니고 補完的인 立場에서 議長이 依賴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立場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語不成說입니다. 서울市民의 稅金을 제대로 豫算內容과 같이 잘 쓰여졌는지 잘못 쓰여졌는지 決算의 證憑을 檢査하는 檢査委員을 市長에게 推薦 依賴를 할 議長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성질의 檢査委員입니다. 따라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외 檢査委員을 選任하고자 할 때에는 政府機關이나 投資機關이나 기타 公認會計士 이런 知識있는 사람으로서 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議會에서 推薦하는 議長의 立場에서 이와 같은 基準에 의해서 檢査委員을 推薦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市長이 檢査委員을 選任한다고 하는 그런 杞憂的인 立場에서 이런 但書條項을 插入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委員 생각에는 第3條第1項 但書 「다만, 위원중 2인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것을 削除하고 第2項에 가서 議會 議員 이외의 者를 檢査委員으로 選任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規定에 의해서, 이와 같은 資格基準에 의해서 議長이 推薦할 수도 있다 하는 任意規定으로 바꾸는 것이 本 서울特別市 豫算에 대한 決算檢査를 하는 檢査 委員 選任의 뜻에 附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第3條第1項 但書條項을 削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本委員의 뜻입니다.

○財務局長 裴文煥; 金委員님, 參考로 하나 報告드릴 것은 서울市長이 檢査委員을 選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選任은 어디까지나 議會에서 하는데 그 對象을 推薦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서울市長이 選任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炯奎 委員; 네, 그러니까 推薦하는 그 問題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執行部の 意思를 議長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하는 그런 意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檢査委員에 대한 問題는 어디까지나 議會가 執行部에서 豫算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與否를 檢査하는 立場이기 때문에 市長의 推薦 檢査委員을 議長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立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마저도 排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推薦도 서울市長이 할 필요도 없고, 議會 議長이 檢査委員을 選任하는데 議員 이외의 사람을 選任하는 경우에는 아까 第2項에 해당하는 이런 要件을 具備하는 사람으로서 推薦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第2項을 任意規定으로 바꾸고 第1項 但書만큼은 削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市長이 推薦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市長이 委員 2名을 推薦할 필요도 없어요. 市에서 豫算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問

題도 그 推薦委員으로 하여금 보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議會에서 決算檢査하는 것에 대한 存續的인 權限問題니까 議長이 그야말로 서울市와 豫算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與否를 믿고, 議員 132名을 대신해서 5人이 豫算을 檢査하는 마당이니 만큼 市長의 推薦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本委員의 意見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다른 委員님들 意見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守 委員 말씀하시지요.

○李秉守 委員; 지금 金炯奎 委員이 指摘한 內容이 執行機關의 豫算執行에 대한 소위 事後監査權의 立場에서 보면 그 指摘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第3條 但書條項에 委員中 2人은..... 먼저 우리가 國會 豫決 무슨 專門委員으로부터 세미나를 받았을 때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듣기로는 5人 中에 세 사람은 市議員으로 補하고, 전체 5人 中에 委員長도 소위 여기에는 代表委員으로 表示를 해 놓았는데 代表委員은 市議員 中에서 하고 그 다음에 會計原理의 專門性이 問題가 되니까 두 사람은 公認會計士로 대개 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趣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局長님께서 背景說明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는데 제가 委員 2人..... 여기 但書條項을 넣어 놓은 理由는 이 두 사람은 公認會計士를 指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公認會計士일 경우에는 우리 市議會 세 사람은 당연 케이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公認會計士 推薦問題를 번거롭게 우리 市議會에 안 주기 위해서 市長이 推薦을 市議會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意味로 포함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解釋을 합니다. 이것을. 그런 視角에서 보면.....

○金炯奎 委員;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섯 사람 전부를 推薦하는 것은 우리 議會의 議長이 權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세 사람은 議會議長에게 추천권을 100%로 주는 것이고,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市長도 推薦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李秉守 委員; 그렇지요. 할 수 있다지요.

○金炯奎 委員; "할 수 있다" 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意圖를 지금 李秉守 委員은 公認會計士를 두기 위해서 市長이 推薦한다 그런 얘기인데, 議長이 推薦을 해도 檢査의 能率化와 效率化를 위해서 당연히 公認會計士나 第3條第2項1號, 2號, 3號에 있는 이런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決算檢査의 能率化는 됩니다. 그러니까 市長이 委員 2名을 推薦할 수 있다 하는 任意規定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議長이 檢査委員을 市議員 3名도 좋고, 또 市議員 中에서 公認會計士가 네 사람이 있다면 네 사람을 다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公認會計士가 부족하다면 檢査의 能率化를 위해서 議長이 公認會計士를 指名해서 推薦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서 市長이 介入할 理由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李秉守 委員이 제 말씀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섯 名 전부를 議員으로 充足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議長이 세 사람이 되었든 네 사람이 되었든 議員으로도 檢査能力이 效率化가 될 수 있다면 하고, 그 效率化에 부족되어 있는 그런 檢査委員이라고 생각할 때에 보충적으로 公認會計士이면 公認會計士, 財務管理에 능숙한 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推薦해서 하는 議長의 權限에 뒤야 되지 두 사람을 市長이 推薦할 수 있다고 하는 任意規定으로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 內容에 대해서 李敏國 委員 말씀하시지요.

○李敏國 委員; 저는 金炯奎 委員님의 質問을 전폭적으로 贊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檢査委員이다 그러면 그 職務와 責任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나온 與件대로 능력이 있고, 또 規定대로 市議會 議長이 5人을 전부 推薦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市長이 推薦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市長이 2人을 推薦을 했다 그랬을 때에 市議會 議長으로서는 그 사람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할 때에, 그 次元에서 볼 때에 아니 받을 수도 없다 라는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第3條第1項의 「2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라는 但書條項을 削除하는 것을 贊成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아직 贊成..... . 정식 案件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意見開陳 中이니까 또 다른 委員님들 意見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 內容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議長이 推薦하든 市長이 推薦하든 議會의 議決을 거쳐서 選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全體會議에서 議決을 거쳐서 選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推薦하든 推薦하는 것은 큰 問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條項을 잘 檢討해 보시고..... .

○李敏國 委員; 누가 推薦하든..... .

○委員長 朴尙東; 李敏國 委員님이 推薦하셨더라도 議會에서 議決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예요.

○李敏國 委員; 누가 推薦해도 좋다고 그런다고 하면 議長이 推薦한 한 사람은 도저히 될 수 없고 市長이 推薦을 한 둘을

꼭 해야만 된다는 어떤 特別規定도 없습니다. 그래서…….

○委員長 朴尙東; 그러니까 議員들에게 모든 權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推薦하든간에 議員 總會에서 議決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但書條項을 檢討하시고…….

○李敏國 委員; 第3條 但書條項은 削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다른 委員님들 意見을 좀 말씀하시지요. 그 內容에 대해서 좀더…….그 意見을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님, 그 但書條項에 대해서 納得이 갈 수 있는 答辯을 하시려면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財務局長 裴文煥; 지금 市長이 2名을 推薦할 수 있다고 規定한 것은 무슨 특별한 뜻이 담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報告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事項은 전국적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主務部處인 內務部에서 條例準則案을 만들 때에 그런 그 構成 方法에 있어서 하나의 方法으로 提示를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道議會는 5명이니까 거기……. 말하자면 거기에서 무슨 決定을 할 때에 過半數가 안 되는 2名, 그것도 推薦을 했다고 해서 아까 委員長님 말씀같이 議會에서 꼭 選任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市·郡에 있어서는 3人 以內로 構成하기 때문에 그 중에 市·郡·區의 自治團體長이 1人을 推薦할 수 있다. 말하자면 人的資源을 推薦할 수 있는 그런 意味이지 다른 意味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炯奎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執行部에서 豫算案은 만들었을 때 執行部の 意思가 反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豫

算案에 대해서 議會에서 議決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決算業務라고 하는 것은 議會의 意思에 따른 豫算이 제대로 執行됐느냐 與否를 確認하는 節次입니다. 그래서 執行廳의 長이 決算業務에 대해서 檢査委員을 選任하고 거기다가 執行部의 意思를 檢査委員으로 하여금 反映하겠다고 하는 背景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內務部에서 이런 條例案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問題다, 內務部 意志가 바로 이거예요, 地方議會를 무시하는 作態라고. 어떻게 해서 나라의, 市의 豫算案의 決算을 하는데 執行의 長이 그 檢査委員을 推薦해서, 물론 아까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委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地方議會 議決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굳이 이런 군더더기의 但書條項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을 마칩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우리 全潤杻 委員님, 財務局의 責任을 맡아 보셨기 때문에 이 內容에 대해서 意見을 한 번 주시지요.

○全潤杻 委員; 意見보다도 그 金炯奎 委員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렇습니까?

○全潤杻 委員; 네, 타당성이 있으니까 可否를 한 번 물어서 決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委員長 朴尙東; 그러면 혹시 車在國 委員이나 質疑 안 하신 委員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金炯奎 委員;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廣域議會는 檢査 委員이 5名이고, 市·郡議會는 3人이라고 하는 制限性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2人을

서울市長이 推薦한다고 하면 서울市長의 立場을 봐서라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立場이 됐을 때는 이것은 일반 市·郡議會와 똑같은 그런 立場이 되어 버리는 그런 矛盾의 內務部の 條例案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래서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理由도 더 添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 第3條第1項 但書規定을 削除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하자는 修正動議가 發議되었습니다. 이 動議에 再請하십니까?

(「再請이요」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金炯奎 委員 發議한 修正動議案은 일단 成立이 되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修正動議案이 成立이 되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改議案을 내실 委員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執行部側도 양해를 하시고, 일단 委員들의 意見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會議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이 提出된 條例案은 일단 處理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이 修正動議하실 서울特別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 第3條第1項 但書規定을 削除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但書條項만 削除하고 原案대로 通過된 것을 可決합니다.

可決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案

(뒤에 실음)
.....

5.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7分)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과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지난 第53回 臨時會 會期 時 서울特別市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곧바로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네, 兪相根 委員님 말씀하시지요.

○兪相根 委員; 먼젓번에 이 案件은 전부 質疑를 했고 答辯까지 듣고 한 事項이기 때문에 더 質疑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을 提議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지난번에 우리가 質疑와 答辯을 다 들은 것

입니다. 지난번에 日程調整 관계로 해서 이것을 금 會期로 留保를 시킨 것입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다음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 財務局所管業務報告에 대한質疑答辯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財務局所管 市政에 관한 質疑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라며, 質疑와 答辯은 財務局長께서 앉으신 대로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財務局 市政報告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資料를 토대로 해서 많은 研究와 檢討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深度있는 質疑를 해 주시고 財務局長께서는 答辯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충분히 理解와 納得이 될 수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質疑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난번에 財務局長께서 市政報告를 소상히, 궁금한 점까지 다 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質疑할 것을 答辯까지 다 해 주셨어요」 하는 委員 있음)

네, 答辯까지 다 해 주셨지요.

그러면 財務局 所管 市政質疑는 지난 번 財務局 所管 業務報告때 財務局長께서 소상히 報告와 더불어 答辯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質疑가 없습니다.

그러면 委員 여러분, 財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財務局 條例案과 그 다음에 市政質疑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時에 續開를 하도록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局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53分 會議中止)

(16時 07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業務報告에 대한 質疑答辯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 市政에 관한 質疑·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님께서서는 어려운 分野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赴任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아마 편안한 곳 1年, 2年, 3年보다 아마 그 어려운 곳의 몇 個月이..... 굉장히 어려운 過程의 일선 責任者로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委員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委員들의 質疑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는 데까지 答辯을 해 주시고, 小委員會 活動 以後의 檢討報告한 內容에 대한 質疑가 혹시 있더라도 "뭐 지난번 質疑한 內容을 또 되풀이 해서 質疑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울市政 諸般問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히, 성의껏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全潤杓 委員; 며칠전 新聞에 보니까 駐車問題 때문에 아주 큰 페이지를 차지했던데 그것 참 좋은 면도 있더구만요. 60歲 이상 된 老人 分들을 한 50名 採用해서 이분들을 活用하고 있다 하는 좋은 記事도 있는데, 이 12時間의 過勞한 勤務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月 한 50萬원 支給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60歲 以上 老人들에 대

해서 12時間이라는 時間은 너무 過勞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社長의 생각은 어떠하시고,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方法이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駐車料金 때문에 是非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30分에 1,000원 받고 있습니까? 30分에 1,000원인데 이것이 너무 過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定期 月 駐車料입니다. 지금 5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入住商人들은 3萬원으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都賣公社에다 建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結論이 안 났다 이러한 記事였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社長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와 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有料駐車 問題는 작년부터 저희 公社에서 研究를 해 왔고, 이 進行事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委員 여러분들에게 說明할 時間이 없었고, 지난번에 이러한 일들을 推進하고 있어서 4月初에 施行하겠다 하는 報告는 했습니다. 39名을 55歲 이상 高齡者로 採用을 했습니다. 그 理由는 市場에 出入하는 젊은 사람을 對象으로 해서 收金을 하는 問題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쓰게 되면 말에서 感情的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停年退職한 사람들이 社會經綸을 통해서 일을 해 준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情緒面이라든가 對民奉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金錢을 取扱하는 問題가 되기 때문에 停年退職者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市 家庭福祉局의 協調를 구해서 39名 中에서 두

사람을 빼놓고 37名은 55歲 以上 者로 저희들이 選別을 해서 건강하고 經歷을 참작을 해서 審査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記事에 나왔습니다만 校長하시던 분이 작년에 65歲 停年인데 금년에 여기 응해서 66歲 되시는 분, 校監하시던 분, 軍樂大將, 公務員出身, 軍 下士官, 將校 出身 이런 분들이 勤務를 하게 되어서 민첩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 생각한 대로 상당히 좋은 印象을 주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있다 해서 참 고령자 選擇을 잘 했다, 이제 指摘한 대로 12時間 勤務하는 問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苦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職員들이 交代로 같이 補助役割을 해서 하는데 한 닷새 되니까 상당히 熟達이 됐는데 規定에 의해서 하루 日當이 1萬 500원으로 支給이 되고, 그 다음에 時間外 手當 그 다음에 特別手當 이렇게 하게 되면 50萬원에서 한 60萬원 사이가 되게 되기 때문에, 또 실지 運營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支出에 관한 問題가 되기 때문에 本廳에서 審議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人力을 좀 抑制를 하자 이렇게 해서 人員을 덜 썼는데, 돈을 받으니까 이제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問題가 결들여서 얘기가 되고, 高齡者에 대한 健康問題 이렇게 해서 人力을 補完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問題하고, 또 앞으로 高齡者들을 活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法이 허락하는 範圍內에서 조금 더 特別手當을 올려서 이것을 補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닷새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열흘동안의 實績에 의해서 補完을 해서 委員님께서 指摘한 分野에 대해서 人力도 늘리고 더 補完作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檢討하고 있습니다.

○全潤構 委員; 네, 그 問題는 55歲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대체적으로 平均 60歲 될 거예요. 될 건데, 지금

社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健康問題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거기서 혹 졸도라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手當이나 지금 支給하는 額數는 같더라도 時間을 조금 短縮해서, 아침 7時에 나온다고 新聞에도 났더군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래서 아까 제가 答辯을 못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아침 7時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이틀을 하면서 現場 여러 가지 事項을 檢討를 해 보니까 季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物量 들어오는 것 봐서도 그렇고 이것을 2時間 늦춰서 9時에서부터 施行을 일단 하는 것이 현재 立場에서는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定期券 5萬원 관계는 대부분이 社長이라든가 任員의 立場에서는 負擔을 크게 느끼지 않는데 月給을 받는 從業員에 대한 負擔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즉각 이틀 후에 3萬원으로 내렸고, 또 時間은 9時로 바뀌서 施行이 되어서 지금 별 問題가 없고, 이제 30分 1,000원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直賣場, 小賣商人들의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5日 동안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애 당초에 專門家들이 計算한 것이 有料化함으로 인해서 自家用 乘用車가 38%가 減해질 것이다 이런 前提下에서 저희들이 負擔을 주면서 抑制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첫 날, 둘째 날 이렇게 보니까 과학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충 徵收前에는 1萬 5,000臺가 들어왔는데 徵收함으로 인해서 7時에서부터 저녁 7時까지 티켓 떠는 것을 보니 9,586臺 그래서 역시 39% 減해졌다 하는 減의 效果는 있습니다. 지금 有料化했다고 하는 것은 都賣機能을 沮害하는 乘用車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施行을 했는데, 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86年度에는 1萬 5,000臺의

乗用車が 40%, 貨物車が 60%였었는데 91年度の 경우에는 5萬 6,000臺로 차가 늘어났는데 乗用車는 60%이고 貨物車가 40%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都賣機能에 沮害되는 部分의 乗用車는 抑制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小賣商들이 다소 不便은 있습니다만 이 問題에 대해서는 좀 더 時間을 갖고 研究를 해서 都賣機能에도 不便이 없고 또 小賣商人들에게도 障害에 크게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계속 補完, 檢討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全潤杓 委員; 네,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리를 가한다면 서로간에 마찰만 생기니까 마찰없이 조용히 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러한 길을 택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社長이 잘 판단하셔서 措置하세요. 이상입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蘇委員님 質疑하세요.

○蘇中天 委員; 제가 駐車場 問題에 대해서 덧붙여서 조금만 質問을 해 보겠습니다.

貨物車が 40%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貨物車는 産地의 農民하고 中間商人을 합한 숫자이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러니까 貨物車는 水産物이든 農産物을 팔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 競賣에 의해서 分散.....

○蘇中天 委員; 사가는 사람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分散, 그 貨物車輛을 얘기합니다.

○蘇中天 委員; 그런데 節次上, 물론 10분에 1,000원이라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節次가 까다롭단 말이에요. 駐車料

를 받을 때하고 받지 않을 때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中間商人들이 그렇지 않아도 京畿地域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競賣가 9時에 이루어지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집에 가서 活用하기 위해서 類似市場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駐車料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 節次의 問題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는 要素가 없겠느냐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現場에, 저희들도 그런 憂慮의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車가 밀릴 것 아니냐, 또 都賣人은 都賣人대로, 仲買人은 仲買人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그 날 7時까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닷새가 되었습니다만 秩序가 완전히 잡혀서 오히려 더 잘 빠지는 現狀이.....

○蘇中天 委員; 車는 잘 빠지지만 실제 中間商人들이 와서 物件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실제 오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느냐 그것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러니까 貨物車는 일체 돈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貨物車는 무조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고.....

○蘇中天 委員; 아, 톤수의 구별없이.....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우리는 오직 乘用車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貨物車는 일체 無事通過입니다.

○蘇中天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質問을 할게요.

全品目 競賣制度의 基盤造成은 可樂市場의 基本方針인데 제가 잠깐 짧게 質問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直販場 開設에 대해서 제가 質問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本會議場

에서 質問을 하겠지만 그 때 市長이 14代 總選 바로 앞에서 各 區마다 다니면서 直販場을 1個所씩 開設한다 그렇게 公約을 했습니다. 그 意圖는 제가 市長한테 質問을 할 것이고, 直販場을 開設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設立한 公營 都賣市場에 상반되는 副作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見解는 어떻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지금 直販場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農協하고, 그러니까 生産地하고 消費者하고 直結을 시켜서 紹介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都賣機能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可樂市場에서 지금 消耗하는 物量은 서울시 전체에 불과 4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農民을 保護하고 또 서울시民을 保護한다는 側面에서는 直販場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蘇中天 委員; 바람직하다고 생각.....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지만 만약에 農民들이 可樂市場 가면 交通도 좀 복잡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問題 때문에 各 區마다 정말 1個所씩 생겼을 때 農民들이 거기 가지 말라는 法이 없거든요. 그곳으로 만약에 직접 들어간다고든, 직접 消費者하고 맞닥뜨려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副作用도 되고 上場競賣者..... 公營 都賣市場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이 안 되지요, 할 수가 없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農協하고 링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蘇中天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問題點이 있다고 보는데 社長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本會

議場에서 質疑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監査 때 賣買參加人 問題가 많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整理가 됐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것은 그 때 여러 委員님께서 小委員會에서 仲買人하고 法人이 계셨을 때에 意見を 聽取하는 過程에서 채소부분하고, 과일부분하고 서로 意見이 달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지 한 5個月됩니다만 소위 收益과, 利益과 관계되는 問題가 되기 때문에 法人과 法人, 또 法人 中에서도 채소와 과일 이것이 다 利害關係가 달라서 가급적이면 社長의 立場에서는 合議에 의해서 원만하게 解決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분들의 意見を 지금 調整 中에 있어서 이 달 안에 빨리 結論을 지어서 그 분들의 불만도 解消시키고 또 앞으로 都賣行爲의 補完을 통해서 이 問題를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나가서 쪽 보니까 한 3個月 前에 나간 것하고 지금하고 하나 變化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質疑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崔明鎭 委員!

○崔明鎭 委員; 注油所에 관해서 잠깐 質疑하고자 합니다.

注油所 현재 注油臺가 10臺이지요? 그 전에 可動中인 注油臺가 몇 臺였습니까, 옮기기 前에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그 전에도 10臺이고 지금도 10臺입니다」 하는 關係任職 員 있음)

○崔明鎭 委員; 그 전에도 可動中인 注油臺가 10臺였습니까? 確實합니까?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 누가 答辯하신 것인데요? 누가 뒤에서 그렇게 答辯을 그냥..... 管理公社 社長한테 質疑했는데 왜 뒤에서 아무나 答辯하고 있어요, 責任없는 答辯을.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9臺였었는데 지금은 10臺입니다.

○崔明鎭 委員; 9臺가 可動中이었었습니까, 옮기기 전에? 可動中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施設되었던 注油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可動中이었던 注油臺가 몇臺였는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사실대로, 아는대로 答辯해요.

○管理課長 張東成; 管理課長입니다.

3臺가 老朽되어서 可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아니, 社長께서 答辯해 주십시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狀態에서 왔습니다.

移轉하기 전에는 9臺가 있었는데 3臺가 老朽가 되어서 제대로 可動이 안 되는 狀態로 있다가 이번에 場所 移動을 하면서 10臺가 設置가 됐는데, 10臺가 지금 다 可動이 되고 있고, 1臺 늘어난 것은 燈油部分 그것이 하나 필요하다고 認定이 되어서 許可가 되어서 지금 營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賃貸料의 變動事項은 있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注油所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移轉 전에는 賃貸料가 月 808萬 2,200원. 그런데 移轉해서는 현재 1,879萬 8,400원으로 1,000萬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理由는 面價이 늘어났고 또 道路邊이기 때문에 地價上昇率을 勘案을 해서 額數가 늘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崔明鎭 委員;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小委에서 建議한 計斤臺 問題 그것 어떻게 檢討해 보셨는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 計斤臺 問題는 제가 赴任을 해서 崔 委員님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公社의 流通 專門大學教授로 構成된 諮問委員會라는 것이 있습니다. 諮問委員會가 있어서 그 때에도 그 얘기가 檢討가 일단은 되어서 현재 立場에서는 實效性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諮問委員들하고 非公式로 對話하는 過程에서 아직까지 현재 立場에서는 去來物量을 調査하는 면에서는 좀 두고 檢討를 해야 될 事項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간 有料駐車場 準備를 하면서 이것을 더 깊이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계속 專門家와 意思 交換을 하면서 계속 檢討해 보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本委員이 計斤臺 問題를 다시 舉論하는 理由는 앞서 全委員님께서도 質疑를 했습니다만 駐車料金, 現代化된 駐車料金 체크기를 設置하는 이 時點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計斤臺를 設置해서 上場競賣制의 빠른 定着과 上場指導班의 前近代的인 上場指導班을 運營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現代化된 駐車 체크기 設置하고 連繫해서 이것을 檢討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여쭙본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난 小委에서 建議했던 法人 資本金增資問題에 대해서 어떻게 推進이 되고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이것은 저희들이 오래 전에 建議한 事項…….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전에 15億원에서 늘려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지금 20億원 내지 30億원으로 增資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족한 것 아니냐, 좀더…….

○崔明鎭 委員; 그 問題가……. 上場競賣制의 21個 品目에 擴大實施가 작년 7月 이후에 있었지 않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崔明鎭 委員; 그리고 금년 1月부터는 50個 品目으로 擴大가 되었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59個…….

○崔明鎭 委員; 네, 59個.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法人의 資本金 增資問題가 時急한 懸案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小委委員들이 意見을 모으고 또 우리 財經委 所屬 委員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建議했던 問題인데 작년 것 가지고 아직도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어안이 멍멍해 집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아니, 저번에는 네 가지 事項으로 指定都賣人 保證金 引上…….

○崔明鎭 委員; 우리가 本會議에서……. 지난번 臨時會 本會議에서까지 李秉守 小委 委員長이 나가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本會議에서 나가서 採擇되고 報告했던 法人의 資本金 增資問題.

(「改善策」 하는 委員 있음)

아니, 改善策이 아니고...... 建議內容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지금 保證金 얘기하는 것입니까, 資本金 얘기하는 것입니까?

○崔明鎭 委員; 法人의 資本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崔 委員, 資本金이 아니고 保證金이지요, 保證金. 保證金...... 上向調整을 해서......

○崔明鎭 委員; 아니, 아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資本金...... 理解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追加를 하겠습니다. 작년 7月 以前에, 上場競賣制 擴大 實施 以前에는 法人을 거치지 않고 仲買人和 産地人이...... 上場競賣를 하지 않고 仲買人이 産地人에게 委託받아서 委託販賣 했지 않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崔明鎭 委員; 그래서 法人의 資本金이, 그런 많은 資本金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7月 이후에 21個品目の 上場競賣制 擴大, 금년 1月 1日 이후에 59個 擴大 이렇게 되면 産地에서 生産된 모든 農産物이 法人에게 일단 委託이 됩니다. 委託이 되면 法人이 그 委託이 된 農産物 代金 支給의 義務가 있습니다. 그 종전에는 仲買人和 産地人 農民과 去來가 됐었지만 이제 法人과 去來가 되기 때문에 法人의 資本金이 増資가 되지 않으면 法人이 不渡나 破産이 될 憂慮가 있습니다. 하루 去來量이 얼마나 막대합니까, 채소, 청과 합해서 計算 안 해 보셨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지금 法人......

○崔明鎭 委員; 그래서 지난 우리 小委에서 그것을 建議를 했던 것인데......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資本金 플러스 運轉資金…….

○崔明鎭 委員; 네, 運轉資金…….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運轉資金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작년 9月末, 작년 말 저희들이 法人들에게 支援을 해서 382億원에서 531億 1,600萬원으로 調整을 해서 149億원을 增資했습니다.

○崔明鎭 委員; 작년 말에 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崔明鎭 委員; 그런데 금년 1月 1日 이후에는 59個 品目の 上場競賣制 擴大로 인해서 더 많은 資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그것을 對備를 해서 이것을 했는데, 아직 法人의 立場에서는 政府에다 農安基金을 좀 支援하는 方案을 研究해 달라 하는 얘기를 며칠 전에 몇 분이 와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그것이 떨어져 問題될 그런 염려는 없고 앞으로 그런 염려를 前提로 해서 일부 法人들은 增資하는 問題를 政府에다 依存하는 그런 意思表示는 있기 있었는데 좀 두고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에 한 個 法人이 不渡가 난 그런 問題 같은 것이, 法人의 運轉資金이 부족했을 때 上場競賣制의 擴大는 계속 擴大가 되고, 物量은 계속 많아지고 할 때 運轉資金이 부족하게 되면 不渡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理致입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小委에서 建議했던 改善案에 관해서 우리 小委員會나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 아직

報告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計劃하고 계십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오늘 機會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準備는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지가 指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公社 機構 및 人員을 1/3을 減縮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가급적이면 人員을 늘리지 않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有料化하면서 현재 人力을 갖고 앞으로 商人들을 指導·監督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機構를 좀 變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조만간에 市長님께 建議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5個月 勤務를 하면서 現況을 딱 파악을 하니 저희들의 主된 業務가 商秩序를 바로 잡는데 法人, 仲買人, 直販商人..... 商人을 監督하는 일이 主된 業務가 되겠습니다. 그간 7·8年 동안 龍山에서 可樂市場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商慣習에서 오는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5年 동안 종전대로 하라 해서 해 오다가 작년 7月부터 競賣制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制度圈法에 의해서 指導·監督을 해야 한다는 問題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法人, 仲買人 또 直販商人들을 指導·監督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實態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現場爲主의 機構로 變動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8월에 糧穀市場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農協에서 죽 하고 있다가 8月內 農水産物管理公社에서 그것을 引受 準備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並行해서 檢討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市費를 節約하는 뜻에서도 앞으로 人力은 여러 委員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抑制하는 方向으로 하겠다, 그런데 1/3을 減縮하라 하는 그 뜻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崔明鎭 委員; 저, 잠깐만. 제가 계속 時間을 끌 수가 없거든요. 아직 檢討가 다 안 끝났으면 차후에 書面으로 當 委員會에 提出해 주시든지 하는 方向으로 하고 다른 분이 있으시면 質疑를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李秉守 委員님 해 주시지요.

○李秉守 委員; 지금 우리 公社 資本金이 얼마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3,500億원입니다.

○李秉守 委員; 3,500億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拂入資本金이 3,074億원지이요, 拂入資本金이?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李秉守 委員; 이 拂入資本金 3,074億원이 언제 拂入된 것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88年度에 建物評價가.....

○李秉守 委員; 아니, 建物評價보다 土地評價겠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土地, 建物.....

○李秉守 委員; 建物, 土地 다. 그러니까 現物出資로 한 셈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現金, 現物 다 합해서.....

○李秉守 委員; 그런데 그것이 88年度 해서 3,500億원밖에 안 돼요, 3,074億원 밖에? 이 報告書 언제 作成한 것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지난 年初에.....

○李秉守 委員; 이것이 지난 年末에 作成한 것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年初에.....

○李秉守 委員; 지금 지난 번 2月 本會議에 報告되었던 調査

報告書, 이것 公社도 받으셨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받았습니다.

○李秉守 委員; 지금 우리 崔明鎭 委員이 잠깐 指摘을 하다가 公式的인, 우리가 調査小委에서 報告를 하면서 改善方案에 대해서 몇 가지 建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公式채널을 통해서 公社 側에 傳達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形態로든 우리가 改善方案 指摘을 내 놓았으면 거기에 相應하는 公社側의 答辯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準備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지금 準備 中에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현재?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李秉守 委員; 그래서 내일 모레 市政質問을 하면서 調査委員이었던 우리 金順愛 委員이 本會議에서 財經委를 代表해서 市政質問을 하면서 調査小委에서 指摘했던 改善方案에 대해서 質問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되도록이면 本會議에서 公式的인 公社側의 答辯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準備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質問事項에 대해서 전체 다 項目別로 答辯을 미리 좀 해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왕 이 問題가 나왔고, 또 駐車料 徵收問題로 몇 사람의 臨時職하고 正式社員이 아마 몇 사람 增員이 된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公社側의 答辯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調査小委에서 이 報告書를 내면서 改善方案에 대해서, 특히 劃期的이라고 할 수 있는 機構縮小, 機構縮小를 1/3도 아닌, 절반도 아닌 2/3를 과감하게 수술을 하는 아주..... 公社側의 立場에서 볼 때는 너무도 의외의 그런 指摘

을 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見解가 어떨지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한 가지 報告書를 낼 때 우리 자체 會議에서 내 놓았지 公社側의 對話를 통해서 이런 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敷衍해서 이런 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背景에 대해서 조금 要約을 하면 그러합니다. 여기 文句에도 나와있지만 管理公社가 267名, 그러니까 3部 2室, 課長이 14名, 係長이 32名 年間 1人當 약 平均 2,000萬원의 豫算을 썼다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 豫算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런 데에 觀點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機構縮小를 해도 가능하겠다고 본 理由가 管理公社가 이 巨大 可樂市場을 直接營業이 아닌 間接營業이고, 그 중추적인 機能은 8個 指定都賣法人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營業의 主體가 아닌 管理의 主體에 불과하기 때문에 機構를 大幅 縮小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觀點으로 봤던 것이 거든요. 그리고 調査小委員으로 活動을 하신 다섯 분이 근 두 달에 걸쳐서 現場에도 뛰어다니고 거기 要路에 관련된 사람들의 諮問도 듣고 이런 저런 것을 熟考를 해서 結論을 내서 이런 報告書를 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公社側에서는 "소위 市議員이라는 작자들이 行政의 行字도 모르는 정말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것이 아니지 이따위 報告書를 指摘事項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아마 그런 말이 충분히 나왔을 것으로 압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事案別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가능합니다. 단, 제가 그 당시 專門性

도 없으면서 調査小委를 맡았던 한 사람의 立場에서 실토를 하면 機構縮小 2/3는 사실은 좀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最小限 1/3정도 縮小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단 없어서 한 번 던져본 것입니다, 內容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公社側의 答辯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한 번 지켜보고 다음 機會에 그問題에 대한 質問, 答辯을..... 한 번 討論의 機會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그 이상 言及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公法的인 答辯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충격을 받을 것은 어차피 臨時會議가 열리고 해서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調査小委의 立場에서 問題提起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따져야 되겠고 해서 그 3部 14課 32係..... 係長이 32名이나 과연 필요하느냐, 課長이 14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課別 업무분장표를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봤거든요. 1년에 1件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를 나열식으로 해 놓은 것이 사실 많아요, 여기에. 그리고 지금 제가 指摘하는 초점은 駐車料 徵收問題로 臨時職을 39名 採用을 하고, 正式職員을 5名 採用했다 했지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사실 참 분개했습니다. 지금 제가 感情을 가라앉히려고 무척 自制를 하면서 質問을 하는데, 우리 調査小委員들이 改善方案 中에 公社 機構縮小 問題에 대한 것이 던져져 있는 時點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리 臨時職이라 할지언정 39名 그리고 正式職員을 5名을 새로 增員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調査小委 改善案을 내 놓은 이것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行政의 "行"字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의 指摘이다 하는 말을 추상으로 던져본 것인데.....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런데 李委員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도 보태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한 일을 合理化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로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駐車料 問題는 작년 7月부터 學論이 되어서 즉 補完, 補完을 해서 最終 決定을 금년 1月 17日 市長님의 最終 決心을 받았습니다. 우리 小委員會가 1月 23日 1次 會議가 있었고 또 2次 會議가 2月 19日에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機構縮小 問題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3月初에, 3月初에 小委員會를 構成을 해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말씀이 계셔서 追後에 小委員會에서 決定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때까지 무슨 1/3이 되었던 2/3를 縮小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事項이었고, 저희들은 16萬坪 3,900區劃의 停車場을 料金を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作業이다, 또 돌부처를 만들지 않은 狀態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人力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人力을 적게하는 方向에서 돌부처를 設置를 해야 되겠다 해서 人力을 最小化 한다고 하는 것을 前提로 해서 이것이 確定이 된 것이고, 39名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한다 하더라도 駐車料金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티켓을 받아야 될 管理要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全委員님께서 指摘이 있었습니다만 最小限度로 줄여서 만들어진 事項이고..... 그래서 절대 小委員會에서 저희들에게 이러 이러한 것을 해라 하고 하는 그 以前에 이루어진 事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委員님께서 理解를.....

○李秉守 委員; 그래서 結論이.....

○委員長 朴尙東; 答辯도 간단하게 하시고 李委員님, 質問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李秉守 委員; 그 39名하고 5名の 新規採用에 대한 計劃이 언제 立案된 것입니까, 이 報告書 나오기 전에 한 것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럼 실제 採用은 언제 한 것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그러니까 確定이 되어서, 4月初에 오픈을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해서 確定이 되어서 募集은 3月初에 했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3月初면..... 우리가 3月 5日 報告書を 드렸는데.....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아니, 그러니까.....

○李秉守 委員; 2月 下旬에 臨時會를 우리가 하고 거기에서 報告가 되고..... 이 文書가 傳達되기는 적어도 3月初에 公社에 갖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이 指摘事項 報告書を 받기 以前에 計劃이 섰고 執行을 했다고 하면 그 말이 成立이 되는데.....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駐車料를 안 받는다면 모르지만 駐車料를 받는 時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로 하는 人員을 저희들이 補充을 했다, 다시 말해서 指摘이 다 된 狀態에서 立案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 委員님께서 하신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절대 그러한 事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李秉守 委員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機構까지 縮小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都賣公社側에 넘겨 놓았는데도 增員을 시켰다 하는 것이 우선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여기에서 人力調整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그 쪽에다 해 놓았으니까 우리 財務委員會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方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다음에 하시든지, 우리가 2/3가 줄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쪽에서는 2/3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떠한 方案이 나오든지 우리 財務委員會에서 내 놓은 것에 대한 代案을 빠른 時日內에 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答辯해 주세요」 하는 委員 있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네, 알겠습니다.

○李秉守 委員; 현재 公社側의 思考方式으로는 지금 267名에서 자꾸 더 늘여야 되지 한사람도 못 줄일 것입니다. 혁신적인 어떤 思考의 轉換없이 는 수술이 사실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모하게 2/3 縮小案을 내 놓았을 때도 지금 서울市..... 앞으로 서울市 方針이 直販場을 여기 저기 建設할 計劃을 가지고 있고 또 隣近에 類似 可樂市場과 같은 制度市場을 지금 建設할 것인데 그랬을 때에 소위 많은 분의..... 機構가 縮小가 되었을 때, 減員이 아닌 轉出式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것까지 念頭에 두고 縮小方案을 일단 내놓은 것인데, 어쨌든 모레 本會議에서 公式的인 答辯을 일단 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상 論議를 지금 하면 意味가 없으니까 本委員의 質問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社長님께서 분명히 줌..... 李秉守 委員이 지금까지 質疑한 內容에 대해서는 社長님과 關係 任員 여러분께서 잘 理解하고 아마 納得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議會 位相의 問題입니다. 地方自治制가 實施되어서 모든 豫·決算 問題를 다루고 그 다음에 各種 條例를 다루고, 그 다음에 또 小委員會가 構成되어서 우리 議會 機能을 정상적으로 發揮할 때 小委員會 委員長으로서 名

實相符한 役割을 했다 이것입니다. 3月 5日 油印物에 의해서 建議事項도 냈고, 建議事項의 內容이 人員 267名에서 조금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1人當 年 한 2,000萬원의 豫算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建議事項을 내고 1個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農水産物 都賣市場管理公社側에서는 一考의 여기에 대한 어떤 答辯이나 어떤 解明도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言及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小委員會 실질적인 役割에 대해서 지난 번 本會議에서 여기에 대한 綜合報告를 했는데, 이번 市政質問이 바로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財經委員會가 小委員會 우리 委員이 전체 132名 委員에게 당하게 되어있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추궁을 하면 答辯을 할 소지가 없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이 意圖적으로, 議會 小委員會 活動에 대한 結果報告書를 드렸는데 바로 人員을 臨時職 39名을 늘리고 職員 5名을 더 增員을 했다는 것은 바로 도전적인 人事가 아니냐, 우린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 問題에 대한 것을 社長님께서 그런 뜻은 아니었을 줄 압니다만 우리 議會에서 決定한 事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계속 對話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建議事項에 대한 것을 어떻게 推進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이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는 一言半句도 管理公社側에서 우리에게 대한 태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小委員長이 상당한 責任을 느끼고 아마 여기에 대한 質疑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本會議에서 여기에 대한 質疑가 있을 것입니다. 社長님께서 충분한 資料를 根據로 해서 答辯을 하실 수 있도록 資料를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委員長으로서 부연해서 說明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바로 會議 開議前에 대단하게 울분을 터트리면서 이것 이럴 수 있느냐,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가 우리 財經委員會 委員들을 어떻게 보느냐, 小委員會 委員長과 小委員들을 어떻게 봤느냐 이거예요.

建議事項 자체를 根本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人員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管理公社가 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이 會議를..... 農水産物都賣市場은 며칠 후로 延期를 시키려다가 오늘 續開를 안할 도리가 없어서 했습니다만 이 問題를 충분히 勘案하셔서 내일 모레 本會議 質疑때 答辯을 할 수 있는 資料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3月5日 運營實態調查報告書를 全委員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그 다음에 社長님께 나누어 드려서 社長님과 全 任職員들이 가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랬는데 바로 任職員 5名을..... 이것은 反撥人事인지 모르겠지만 딱 늘리고, 그 다음에 臨時職 39名을 딱 늘려버리고 新聞에 다 發表해 버리고, 이것 우리는 로보트가 아니고 뭐예요. 建議事項도 있지만 기타 建議事項, 駐車施設 이것은 우리가 肯定的으로 小委員會에서 評價를 해 드렸어요. 현재 " 管理公社 場內 車輛出入에 대한 駐車料 徵收方案은 긍정적으로 評價할 수 있다" 해서 기타 建議事項도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問題를 檢討를 안 했다는 것은 理解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委員長으로서 小委員長の 質疑內容에 대한 것을 부연해서 說明해 드린 것이니까 社長님께서 충분히 이 問題를 參考로 해서 本會議 質疑때 答辯할 수 있는 충분한 資料를 가지고 오십시오. 132名의 委員들이 이 內容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만 社長님께서 그렇게 아십시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委員長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市議會가 構成이 되어서 그간 여러 委員님께서 정말 저희 公社에 대해서 愛情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激勵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指導를 해 주셨습니다. 추호도, 추호도 무슨 도전을 한다거나 또 무시를 했다거나..... 제 公職生活 32年 동안 하면서 오늘 委員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도록 處身을 했다면 그 處身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시다만 有料駐車場의 필요성은 뜻있는 사람들이 共感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前提로 해서 제딴에는 社長으로 赴任을 해서 이것을 施行하기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시다만 小委員會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애착을 갖고 무엇인가 管理公社 都賣市場의 運營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立場에서 여러 가지로 指摘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로 注視를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 有料駐車場을 하는 것을 契機로 해서 市場의 諸般秩序를 바로잡고, 또 全 職員들이 새로운 出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忠情에서 지금 最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委員長님 以下 우리 財經委員 여러분들에게 그런 印象을 주었다고 한다면 절대 本意가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愛情에 보답을 하지 못할망정 제가 이것을 무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認定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제 處身の 잘못으로 여러분들이 理解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 委員 여러분들의 理解를 바탕으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한 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여기 우리 幹部들 다 와 있습니다만 心機一轉해서 정말 可樂市場

都賣公社가 市民들이 또 우리 市議員 전체에게 바람직한 方向에서 정말 잘 하는구나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善處해 주시길 바랍니다.

○委員長 朴尙東; 社長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 주십시오. 다른 委員들 質疑 있으십니까?

金順愛 委員 質疑 하시지요.

○金順愛 委員; 臨時職員 39名하고 正規職員 5名 發給을 언제 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社長 金永根; 發給은, 4月 8日부터 받는다 이렇게 해서 敎育도 시켜야 하고 해서 4月 1日字로 發給을 냈습니다. 新聞에는 아까 제가 3月初라고 했습니다만 서울新聞에 2月 25日字로 發給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에 1/3을 줄여라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本趣旨는 1/3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딱딱히 하라, 정신 차려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所管 市政에 관한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議事進行에 協調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그리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12分 散會)

○出産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全潤杓 柳準向 車在國

金順愛 李秉守 李敏國
俞相根 崔明鎭 金炯奎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

室長 朴宗雨

市政研究官 康泓彬

投資管理官 金益洙

技術審查官 洪鍾敏

企劃擔當官 金光市

審查分析擔當官 金淳直

豫算擔當官 金禹奭

投資管理擔當官 崔永福

市政開發擔當官 李哲秀

法務擔當官 陣翼喆

技術審查擔當官 金南焄

財務局

局長 裴文煥

會計課長 鄭而幹

稅政課長 鄭鎭克

稅務指導課長 李君杓

管財課長 全長河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監事 朴順哲

總務理事 李季春

業務理事	徐廷熙
總務部長	姜炳元
流通情報室長	張東成
管理部長	李大均
業務部長	李廷一
監查室長	金善求